

“사찰순례 하고 농민 살리고”

도선사 신도 3000명, 송광사 참배·직거래장서 특산물 구입

조용하던 산사에 시끌벅적한 장이 었다. 11월 29일 오후였다.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 일주문 앞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 것이다.

순천시와 지역 농협이 간이천막을 치고 쌀, 김치, 뽕잎차, 친환경 밤, 산나물 등 30여 가지 지역 특산물을 펼쳐놓았다. 순님은 서울에 사는 불자들이었다.

이날 서울 도선사 신도들이 사찰순례차 송광사를 찾았다. 대중이 무려 3000여명으로 송광사 장전 이래 최대였다.

이들은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과 함께 전국 사찰을 찾아 기도정진하는 '108순례 성지순례단'으로 통도사, 해인사에 이어 세 번째 순례길이었다.

농산물 시장은 사찰 참배와 기도정진이 끝난 오후에 시작됐다. 천막마다 농민과 순천시 나승병 부시장, 순천농협 강성재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귀경에 앞선 불자들은 너나없이 양손에 먹을거리를 사들고 나갔다.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맨 오른쪽)과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순천지역 농업관계자들로부터 특산물을 구입하는 모습.

친환경 밤을 구입한 도선사 신도 무위행 보살(63·인천)은 “사찰순례 때마다 지역 특산물을 찾는데 믿음이 가지 않았다”며 “믿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찰에서 선

물을 받아가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이번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의 요청으로 송광사와 순천시, 지역 농협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

송광사 참배에 앞서 혜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촌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며 “사찰참배 뿐 아니라 농산물 장터를 활성화시켜 농촌 살리기에 불자가 앞장서자”고 말해 사찰순례 때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뜻을 밝혔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도 “사찰에서 열리는 농산물 장터는 도시와 농촌사찰, 도심 불자와 지역민이 상생하는 자리로 새로운 사찰순례 문화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농산물 장터에서 순천시와 순천농협은 송광사와 도선사에 쌀을 선물했고, 혜자 스님은 지역 복지시설에 성금 108만 원을 기탁했다.

한편 도선사 순례단은 송광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108참회정진, 발원 등 기도정진을 하고 국사전-수선사(선광)-응진당-관음전-승보전 참배로 송광사를 순례했다.

이로써 ‘도선사 108성지 순례단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쾌활이 내걸린 야단법석은 아니지만 사찰과 지역주민,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을 향한 ‘장터법석’이 되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절에서 엄마랑 절하고 싶어요”

원각사 어린이법회 김경희양 급성골수염 백혈병으로 투병

광주 원각사 어린이법회에서 참선을 잘하는 김경희(11·사진) 어린이, 경희양이 지난달 급성 골수염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



화순 전남대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희양이 어린이법회에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몇 차례 힘겨운 항암치료를 받고 골수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백혈병이

라는 무서운 병보다 경희양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말쑥한 독에 불꽃 듯 들어가는 치료비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경희양은 “하루빨리 엄마 손잡고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하고 싶다”며 천진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광주사암연합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11월 29일 경희양 돕기 모금운동을 펴고 성금 208만 5150원을 모금해 경희양에게 전달했다. 후원광주은행 019-107-319286 예금주 원각사 062223-3168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 광주본부, 1400만원 전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스님)는 11월 27일 화순 전남대병원 장일실에서 생명나눔 투병지원 치료비 1400만원과 현충저서 1000매를 전남대병원에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남대병원에 전달한 성금은 서울 동국대에서 개최한 자선음악회와 지역본부장 취임식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환자 3명에게 치료비로 전달된다. 이준엽 기자

나 출가한 인연을 소개하며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져보고 온 세상이 그런 모습인 줄 착각하듯 자기의 참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국불교의 위대함을 믿고, 환자가 약을 먹고 치유하듯이 선(禪)을 약으로 삼아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043)263-2369

여래종, 최고위원 추대법회



한국불교여래종은 11월 30일 총본산 금강대야사사에서 ‘세계불교승왕칭 최고위원 추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300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주 의천 해일 등진 법제 만오 스님이 최고위원으로 추대됐다. 이에 앞서 여래종은 창종 41주년을 맞

아 11월 26일 금강대야사(주지 명안)에서 ‘국태민안 세계평화 기원대법회’를 열었다. 여래종 종도의 원력과 개혁의지를 담은 창종기념비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참가대중 500여명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2007년 원만 회향되기를 발원했다. 이 자리에서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은 “불교를 흥표하고 종단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모든 종도가 힘을 모아 나가라”고 당부했다.

해철 대전 충북 지사장

‘네꿈을 펼쳐라’ 교고생 특강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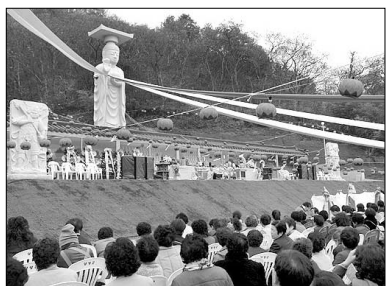
청주불교방송이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섯차례의 특강을 열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명사초청 방송강연회-네꿈을 펼쳐라’를 주제로 열린 특강은 11월 28일 오창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주 대성고, 제천고, 청주 세광고, 충주여고 등 5개 학교에서 열렸다. 프로야구 송진우(한화 이글스) 선수, 수필가 민용태, 고려대 교수, 전여욱 국회의원, 정봉규 지엔태 회장, 최동철 스포츠 평론가가 강단에 올라 그들의 인생관과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태고종 충북교구 ‘의식개혁운동’

태고종 충북교구 총무원(원장 월담)은 11월 28일 원무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태고종 충북교구는 내년 소속 사암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의식개혁운동 △애초종심 고암사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속 사암의 분담금을 각각 50%씩 상향조정해 재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호남에 미륵대불 ‘우뚝’ 담양 용화사, 기념 전시도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은 11월 26일 호남 최대규모의 석조 미륵대불을 조성하고 점안 및 낙성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점안식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과 조계종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사암 스님과 이정섭 담양군수, 허경렬 담양경찰서장 등 지역 기관장, 신도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통불교연화회 주관으로 펼쳐진 점안

식에 이어 주지 수진 스님은 “중정을 역인한 묵담 스님의 유언에 따라 국민통합 경제부흥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미륵대불을 모셨다”며 “바른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불제자가 되어 용화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용화사는 미륵대불 점안을 기념해 ‘연담사기전’ 특별전을 2007년 1월 4일까지 개최한다. 이준엽 기자

우도로 교포 돕기 음악회



무등산 중심사 문화광장에서 환경과 평화를 기원하며 음악회를 개최하는 무등산 풍경소리가 일본 우도로교포돕기 음악회를 가졌다.

광주 중심사주지 진화와 지역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무등산 풍경소리는 11월 25일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 48번째 음악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야기손님으로 초청된 5·18기념재단

이흥길 이사장과 배지원 우도로 국장은 “60년이상 우도로에서 살아온 동포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격려하자”고 호소했다(사진).

한편 일본 교포에 자리한 우도로는 일제 강점기에 군비행장 건설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살고있는 해방되지 않은 마을(www.utoro.net)이다. 최근 65세대 200여명의 재일 조선인이 강제 철거 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한국불교 위대함 믿어라” 충북불교대 현각 스님 초청 특강

“푸른 눈의 남자”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이 충북 청주를 찾아 참나를 발견하는 공부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11월 29일 충북불교대학(화정 각) 초청으로 열린 강연회(사진)에서 현각 스님은 500여 대중에 “불교는 일방통행의 가르침이 아니라 큰 의심을 갖고 대화식을 옹의심을 풀어 스스로 참나를 찾는 공부”라며 “내면 보다 밖의 모습에 치우쳐 살고 있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서양의 종교와 정치, 교육의 한계를 느끼던 중 은사 승사 스님을 만



해철 대전 충북 지사장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2007학년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서울·부산]

모집과정

- 입문과정 (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 대학과정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
- 대학원과정 : 주간 및 야간반 00명 [주2회 출석]
- 통신과정 : 대학 00명 / 대학원 00명 (*대학원은 월 1회 의무 출석)

지원자격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재(일)반인 직장인(환영)
- 대학원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법사, 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2월 1일 - 2007년 2월 28일
- 대학, 대학원과정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 카드결제 됩니다 (합부가능)

장학혜택 : 부부(가족)입학시 : 50%. 성적우수자 : 50%, 스님 : 30%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외환은행 : 630-005063-139 [예금주:대원불교진흥원]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707-1072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811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의

-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02)707-1072
-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051)583-7811

특전

- 불교학과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법사고시 후 합격자에 한해 법사품수식을 거쳐 법사자격증을 드립니다.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부여
본교의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시면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거쳐 2급불교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시어 구체적인 전문영역(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가정상담 등)을 수료한 분에 한하여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1급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대원불교대학·대학원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02)707-1072 / Fax 02)3273-1618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051)583-7811 www.buddhaschool.or.kr